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4일 -



| 주요 기사내용 |  | 해당부서      | 보도매체 |
|---------|--|-----------|------|
| ○       | 고온 환경 생리장애 피해 적은 ‘대사니’<br>주목-6면          | 원예작물과     | 제주매일 |
| ○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기초교육 수료식-8면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제민일보 |
| ○       | [기고] 자청비가 피운 흰 물결 ‘제주<br>메밀축제’ -10면(이정배) | 원예작물과     | 제주일보 |
| ○       | [독자기고] 5월, 꿀꽃계절의 제철 매력<br>속으로-15면(고희열)   | 기술지원조정과   | 제민일보 |
| ○       | 가족과 함께하는 ‘꿀꽃계절 소풍’ 행사-13면                | 기술지원조정과   | 삼다일보 |
| ○       | 히트펌프로 농가 난방비 절감 효과 뚜렷-6면                 | -         | 제민일보 |
| ○       | 방풍수 정비 현장작업 속도 제주시, 농가<br>불편 최소화-15면     | -         | 제주매일 |

(제주매일: 2026년 5월 4일)

○ 고온 환경 생리장애 피해 적은 ‘대사니’ 주목-6면

## 고온 환경 생리장애 피해 적은 ‘대사니’ 주목

도농업기술원 자체 육성 이차생장을 타 품종대비 28% ↓  
기존 ‘남도’ 대비 기후 적응성 ↑ 수량 확보 안정적 장점

최근 기후변화로 마늘 재배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품종 ‘대사니’가 고온 환경에서도 생리장애 피해가 적고 안정적인 생육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평균기온은 1980년대 15.4℃에서 최근 16.8℃로 상승했으며 2~3월 기온 상승 폭이 커 월동채소 주요 생육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2024년에는 마늘 재배면적 1088ha중 약 47%에서 이차생장(벌마늘) 피해가 발생

하는 등 농가 피해가 늘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외기 온도 대비 1~5℃ 높은 조건에서 난지형 마늘의 생리장애 반응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차생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행 재배 품종인 ‘남도’는 외기온도보다 3~4℃ 높을 경우 이차생장 발생률이 각각 52%, 53%로 나타났다. 반면 ‘대사니’는 동일 조건에서 28% 수준으로 절반가량 낮았다.

농업기술원은 같은 온도 조건에서 품

종 간 생육 반응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대사니’가 기존 ‘남도’보다 기후 적응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한 품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향후 고온 조건에서의 생육 특성 변화와 병해충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품종 보급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매일 6면

(제민일보: 2026년 5월 4일)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기초교육 수료식-8면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기초교육 수료식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 현광철)는 지난달 29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신규농업인 기초교육’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농촌과 연계한 제주의 6차산업 전망과 치유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다뤘으며, 반려식물과 교감하는 치유프로그램 실습도 병행했다.

5. 4.  
제민일보 8

(제주일보: 2026년 5월 4일)

○ [기고] 자청비가 피운 흰 물결 ‘제주 메밀축제’ -10면

# 자청비가 피운 흰 물결 ‘제주 메밀축제’



나의 의견

이 정 배

道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팀장

제주 들녘이 하얀 메밀꽃으로 물 들어가는 계절이다. 제주의 경관과 먹거리를 대표하는 메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제주 신화 ‘세경본풀이’ 속에는 농경의 여신 ‘자청비’(自請妃)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하늘에서 오곡 씨앗을 가져와 땅에 심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메밀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메밀 축제를 단순히 ‘꽃구경’과 ‘먹거리’에만 치중해왔다. 그렇다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더해 축제의 품격을 높여 할 시점이다. 자청비 신화는 그 자체로 훌륭한 축제의 서사가 된다. 예를 들어, 개막 행사를 자청비가 씨앗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기획하거나, 메밀밭

사이에 신화의 주요 장면을 형상화한 ‘자청비 스토리 로드’를 조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자청비가 가져온 씨앗의 소중함을 배우는 ‘어린이 농부 학교’나 메밀꽃과 마을 길을 연계한 ‘오감만족 치유, 프로그램 등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강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 농업인의 역할이다. 이들이 축제의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주민이나 농업인이 주축이 된 마을 협의회와 협동조합이 운영의 중심에 서고, 전문가들은 마케팅과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지원하는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면 축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척박한 땅에서도 곳곳이 피어나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 중인 메밀꽃 물결 사이로 자청비의 지혜가 흐르고, 그 기운이 우리 농업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로 피어나길 <sup>5. 4.</sup> 제주일보 10

(제민일보: 2026년 5월 4일)

○ [독자기고] 5월, 굴꽃계절의 제철 매력 속으로-15면

독자기고



고희열

제주에서 감귤을 빼고 제주를 논하기는 어렵다. 제주인의 삶과 문화, 경제와 사회, 모든 곳곳에 감귤이 스며있다. 감귤은 600여년 전부터 제주를 대표했고 산업화에 진입

한 그 시절부터는 제주를 살리고 키워낸 작물이었다.

과거 척박했던 섬의 선택이었던 감귤은 생산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다 변화의 요구에 따라 최근에는 품질을 올리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면서 1조원대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산업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감귤의 역할과 경쟁력을 키우고자,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고자, 산학연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제주 감귤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5월 감귤꽃을 테마로 굴꽃축제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1월 예정인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를 사전 홍보하고 굴꽃계절의 제철 매력과 가치를 나누고 즐기고자 마련된 자리다.

'굴꽃계절 소풍'은 오는 9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상호동 과원돌담

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굴꽃 향기가 넘나드는 과원돌담길을 걸으며 제주와 제주감귤을 품는 시간, 5월에만 만나는 특별한 감귤인 하귤을 맛보고 청으로 담아보는 순간, 굴꽃 화전과 굴꽃차를 즐겨보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으로 풍성한 행사를 만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굴꽃계절의 제철 매력을 즐기며 제주 자연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5.4. 제민일보 15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성과 중은지모사

(삼다일보: 2026년 5월 4일)

○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13면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  
△일시=5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남원읍 하례리) 일대  
△참여 대상=도민·관광객 등 누구나/300  
명 내외/사전예약 필수 △주요 내용=굴꽃  
계절길 걷기, 굴꽃 화전 만들기, 굴꽃차 시  
음, 소원나무 꾸미기, 하굴청 담기 등 △사  
전 예약=제주감굴박람회 누리집([https://  
www.jicexpo.com](https://www.jicexpo.com)) △문의=762-3091((사  
제주국제감굴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0-7512(농업기술원)

5. 4.  
삼다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5월 4일)

○ 히트펌프로 농가 난방비 절감 효과 뚜렷-6면

# 히트펌프로 농가 난방비 절감 효과 뚜렷

## 차세대 친환경 난방 장치 주목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 감축  
“고유가 시대 농가 부담 해소”  
감귤 상품성 향상에도 도움  
설치비 70%까지 정부 지원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김기주씨가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두영 기자

공기 중의 열을 끌어와 난방에 이용하는 ‘히트펌프’가 치솟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로부터 차세대 친환경 난방 장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25년째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김기주씨(56) 역시 해마다 치솟는 난방비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최근 농장에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했다.

히트펌프는 열을 직접 만드는 대신 냉매를 이용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그 반대로 열을 이동

시키

5. 4. 제민일보 6

데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의 보일러에 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히 적은데다 투입되는 전력의 3배 이상 난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효율이 높아 친환경 난방 시스템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24년 처음 히트펌프 보일러 2대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1대를 추가로 설치, 현재 총 3대를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난방비가 기존 기름보일러 등을 사용할 때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김씨는 “예전에는 기름보일러를 이용할 때는 1년에 8000ℓ에서 많을 때는 1만ℓ까지 사용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너무 컸다”며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바꿨는데 고전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난방비 절감 효과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한 달 600만원 정도 들던 난방비가 이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서 “고전압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 역시 매우 쉬워졌다”며 웃음을 보였다.

특히 김씨는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한 이후부터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일손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감귤 상품성 향상에 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번 온도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계속 농장에 매여있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세세한 조정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생육 단계에 맞춘 온도 조절을 통해 당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용 히트펌프는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과 연계돼 사업장당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설치비의 7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설치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올해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한국에너지공단이 총 33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소상공인 히트펌프 보급에 나서고 있다.

김두영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4일)

○ 방풍수 정비 현장작업 속도 제주시, 농가 불편 최소화-15면

## 방풍수 정비 현장작업 속도 제주시, 농가 불편 최소화

제주시는 올해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행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현장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풍수 정비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과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필수 과제로 제주시는 사업에 선정된 190여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인 사업 추진

일정보다 앞당겨 보조금 교부 결정과 전문 작업단 배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감귤 꽃 개화기와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 정비를 마치기 위해 상반기 내 전체 작업 물량의 70% 이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풍수 정비는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봉 기자